

노인의 소득 유형과 삶의 만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종건*, 양성욱**

<국문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소득과 노동이 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서 노동 참여가 소득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 5차년도(2014)자료 중 60세 이상 노인 5,331명을 대상으로 소득유형을 총소득, 노동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노동 참여를 조절변수로 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노동 참여는 총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동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공적연금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 참여는 공적연금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노인의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고용 연장에 초점을 두는 노인 노동 정책은 삶의 질이라는 측면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노년기 일자리를 보다 세분화하고 공적연금의 비중을 일정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삶의 만족도, 노동소득, 공적연금소득, 노년기

* 서종건(주저자, E-mail : blackwar100@naver.com)

현직: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 양성욱(교신저자, E-mail : motowiz@naver.com)

학위취득대학: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현직: 제도와 사람 사회복지연구소 객원연구원

논문접수일: 2017년 10월 5일, 논문수정일: 2017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17년 11월 6일

노인의 소득 유형과 삶의 만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31

The Effect of Income Sources on Life Satisfact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Old Age

Seo, Jong-gun, Yang, Seong-wook

<Abstract>

This study examine the effect of income on life satisfaction for older people,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is study utilized the fifth wave (2014) of 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 including 5,331 older people over 60.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ategorized income by type (annual total income, labor income, and public pension) and used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total income and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ffect life satisfaction positively, and that labor market participation has a moderating effect on relation to total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Labor income has no effect on life satisfaction, but public pension income has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for older people. and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need for policy revisions to create high-quality jobs that consider quality of income rather than quantitative expansion of job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old age. In addition, they highlight a need to subdivide the labor market for older people and to maintain a proper proportion of public pensions.

[Keywords] *Life satisfaction, Labor income, Public pension income, Old age*

I. 문제제기

노인에게 있어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기는 일반적으로 의존적이고 소비적인 시기로 인식되었다(백옥미 2014). 실제로 일정한 연령 이상이 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라는 이름으로 생산적 활동에서 벗어난다. 은퇴는 생산적 활동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사회적 삶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휴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접어든 ‘개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이라는 공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생산적 활동에서 은퇴하였다 하더라도, ‘노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곧 노인이 일상적이고 연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최혜경 2011).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는 공적 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형태로 보완한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혜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는 사적부양이나 은퇴 이후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경제적 욕구를 채우게 된다(이갑용 외 2010). 특히 과거와 달리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생계유지 등 경제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백옥미 2014).

이처럼 노인이 생산적 활동에서 벗어난다는 인식은 실제적 모습과 온도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과 인식의 온도차는 앞서 언급한 대로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적연금의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인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노인의 경우 가장 선호한 방식은 공적 연금으로 67.2%

이다(정경희 외 2005). 동시에 노인들이 일 즉 노동을 하고 있는 이유로 생계유지를 위해서가 69.9%로 나타난 반면 건강을 위해서는 9.6%, 일이 좋아서는 6.5%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공적연금과 노동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헌들에서는 노인의 노동이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부각시키려 노력한다. 대표적으로 백옥미(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위 연구에서는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가 노인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다. 그 외에도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노년기의 노동 참여가 노인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강지애, 2006; 박금분, 2008; 이갑용 외, 2010; 임중철 외 2012; 김동배 외 2013; 이보람·이정규 2016).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취업,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활동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핵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와 같은 활동들이 노인의 건강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다(WHO 2007). 물론 노동시장 참여가 개인 삶의 만족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활동은 노인이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기의 노동이 빈곤을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노년기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결국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전혜정·김명용 2014; Lee & Smith 2009).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 삶의 만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시장의 참여여부

만을 확인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노인의 경제적 수준 차이는 다양하다. 이것은 소득의 유형도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이다. 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소득의 전부, 즉 총소득이 될 수는 없다. 총소득은 단순히 노동소득이 아닌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처럼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상록·이순아 2014).

노동이 아닌 소득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노인의 노동 참여로 인한 삶의 만족은 단순히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로서의 만족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은 경제적 수준의 차이와 이를 보완하지 못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계를 노동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위의 해석을 바탕으로 고민해보자면 노년기의 노동이 가진 의미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노인의 소득 수준과 관련하여 저소득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강선옥 2011). 이것은 저소득층 노인이 경제적이나 건강의 문제 등을 겪기 때문이다.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시장 참여 등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진구 2012).

정리하자면 노인은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 문제를 겪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확대시켜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노인이 겪게 되는 심리·정서적 문제는 단순히 노년의 시기에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을 활용하여 노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소득 유형 및 소득 수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년기 노동 시장 참여에 관한 재인식과 정책적 보완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삶의 만족과 소득 유형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굳이 문헌을 보지 않아도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준다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형태로 문제를 겪는지 파악한다.

저소득층 노인이 겪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소득층 노인을 정의하고자 한다. 저소득층의 개념은 가변적인데 이것은 시대적 상황, 경제적 수준,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빈곤이 문제였던 과거에는 의식주 문제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었으나 현대에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강선옥 2011). 이것은 결국 소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의를 차용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저소득 노인을 “월 평균 소득미만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강선옥 2011 재인용).

통계청(2011)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경제활동 비율은 29.4%로 나타

났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36.2%) 다음의 비율로 또한 노인 인구의 58.5%는 향후 취업 등의 경제활동을 원했다. 앞서 문제제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노인들이 취업을 하고 또한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문제 때문이다. 이것은 곧 노후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9년 현재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한 노인은 61.0%나 되었다.

이처럼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는 곧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를 연구한 결과들은 노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건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우해봉·윤인진, 2001; 이승미, 2002; 김승곤, 2004; 강혜원·조영태 2007; 김진영 2007; 이미숙 2009; 김진구 2012). 이중 김진구 (2012)는 건강관련 삶의 질 척도인 EQ-5D를 활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 불평등을 측정했는데, 연구 결과 운동능력이나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등 모든 영역에서 불건강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장애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경제수준이 낮거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식하는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들 수 있다(김형수·김용성 2009).

이처럼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건강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보여주는데 일상 활동의 경우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노인이 겪는 건강의 문제는 심리·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이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지현(2000)은 스트레스와 건강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주거와 돌봄 등에도 경제적 문제가 영향을 미쳐 고독감, 소외감 등을 겪게 된다고 언급한다.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저소득층이 우울에 더 취약하며 주관적 건강평가도 일반노인에 비해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났다(이태화 외 2005; 원종순·김계하 2008).

장선옥(2011)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노동의 질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노인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영향을 받았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노동의 질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노인의 삶의 만족을 살펴보는 데 있어 노동의 유무와 함께 총소득을 포함한 소득 유형과 경제적 수준 역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이상록과 이순아의 연구(2014)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노인의 소득유형 및 소득원을 근로/사업 소득 의존형, 재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사회보험수당소득 의존형과 공공부조소득 의존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소득유형과 소득원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즉 심리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의 소득유형 및 소득원 중 공공부조소득 의존형은 노인의 심리적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근로/사업소득 의존형은 노인의 심리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의 연구의 경우 노인의 근로/사업 소득을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것을 이럴 경우 부업과 같은 노동참여가 무의미해진다는 측면에서 동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

과거, 노년기는 사회와 유리되어 개인의 삶을 정리하는 시기였다. 김남순은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을 근거로 과거에는 노년기가 일·사랑·인간관계를 털어내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김남순 2007, 151)였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 연구자들은 노년기를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노동을 지속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대표하는 것이 생산적 노화(Successful ageing)이다(Bass et al. 1993). 생산적 노화는 노인이 은퇴 이후에도 유급이나 무급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것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정화·강민아 2017). 실제로 임금 노동을 하는 노인이 삶의 만족이 노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의 결과(Aquino et al. 1996)는 위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생산적 노화의 경우 노인의 활동을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의미로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선권 2013).

다른 한편으로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지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을 들 수 있다(박석돈 외 2008; 백옥미 2014; 이보람·이정규 2016). 언급한 이론들은 개인에게 성공한 노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그 맥락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활동이론이 삶의 만족 등 좀 더 가치지향적인 측면이라면 지속성 이론은 노인부양이 한계에 다다른 사회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백옥미 2014).

활동이론과 지속성 이론은 노년기의 활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위의 이론들은 상대적으로 노후보장이

잘 되어 있고 노년기의 진입이 실질적인 은퇴를 의미하는 선진 국가들의 경향을 바탕으로 적용된 것이다. 노후보장이 불투명하고 노년기가 빈곤을 뜻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위의 이론들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년기의 활동 더 직접적으로 취업 등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남순(2007)의 논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남순은 노인의 취업이 주는 의미를 노후의 소득보장, 가족의 부양부담을 포함한 사회적 부양의 감소 마지막으로 노인 집단의 심리적 고립 및 소외감의 감소로 이야기한다.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가 미약한 한국사회에서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노동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이것은 가족의 사적부양이 점차 부담으로 인식되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사회의 노후는 사회적 단절을 가져와 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것은 곧 노인 노후의 노동이 빈곤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 때문인지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 참여의 효과가 사회적 참여의 효과보다 높다고 보거나(이보람·이정규 2016) 노년기의 전반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백옥미 2014)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노년기의 취업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권중돈·조주연 2000; Christ et al. 2007) 들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노년기의 취업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이정화·한경혜 2003) 혹은 우울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전혜정·김명용 2014; Jang et al. 2009)도 보고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높다는 연구(허성호 외 2011)도 존재한다. 이처럼 노년기 노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달리 노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혼재되어 있는 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년기를 즉 노인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이다. 노인을 다양한 개인의 집합으로 인식했을 때 노년기 노동이 주는 삶의 만족에 대한 해석은 동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김은영의 연구(2012)에서는 빈곤할수록,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다시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의 연구에서는 재취업을 포함한 노인의 노동 활동과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행되었던 연구들의 결과를 보았을 때 노년기의 노동으로 인한 만족도는 단순히 노동 소득의 문제가 아닌,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안정적인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노인에게 노동할 자유도 중요하지만 노동하지 않을 자유도 중요한 것임을 의미한다. 즉 노동시작에서 자율적인 진/퇴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인데, 김은영(2012)은 이것을 완전은퇴의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한 노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완전은퇴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노동은 개인의 선택이 된다.

하지만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동시장에 나와야 하는 압박에 내몰릴 여지가 있다(김은영 2012, 32). 김은영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노동을 하더라도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삶의 만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이 낮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김은영의 연구는 생계를 위한 노동이 경제적 어려움을 상쇄하기에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을수록 노동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로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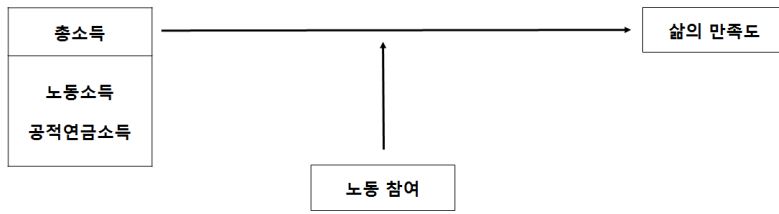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영애(2010)의 연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영애의 연구에서는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의 활용이 많은 경우가 노동을 하는 경우보다 생활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의 활용이 높다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유리되지 않았으며 노후의 빈곤과 거리가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다. 하지만 노인의 소득유형에 따라 노동 참여가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소득유형별을 분류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살펴 본 경우(이상록·이순아 2014) 역시 노동을 소득의 형태로 단순하게 유형화시켰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소득 유형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에 노동 참여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의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를



통제변수 :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사회활동 참여

<그림 2> 연구모형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는 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 독립변수는 소득수준으로 본 연구는 연간 총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노동소득과, 공적연금소득으로 나누어 소득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절변수는 경제활동으로서 노동 참여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수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수준을 포함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제5차(2014)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 1차 년도에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45세 이상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10,254명을 조사하였고, 이후 2년 마다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5차 년도까지 응답을 유지한 사람은 총 7,029명이다.

한편, 노인관련 법령들을 살펴보면 고령자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를 수급권을 지닌 노인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소득을 총소득, 노동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5차 자료에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60세 이상의 노인은 총 5,331명이다.

3.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0~100점까지 총 10개의 점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최소 0점 ~

최대 100점까지의 점수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소득은 총소득, 노동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총소득은 ‘작년 한 해(2013년) [응답자]님을 포함해서 함께 사시는 가구원의 총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 소득과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노동소득은 월 평균 임금소득에 지난해 임금소득 개월 수, 월 평균 자영업 소득에 지난해 자영업 소득 개월 수를 곱한 뒤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노동소득을 위와 같이 조작화한 이유는 조절변수인 노동이 임금소득, 자영업소득, 부업소득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적연금소득은 지난해 국민연금 월 평균 금액, 특수직역연금 월 평균 금액, 기초노령연금 월 평균 금액에 각각의 수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방식의 노령급여이지만, 공적연금의 가장 기본적 체계라 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 산출에 포함하였다.

3) 조절변수

조절변수인 노동 참여는 ‘현재 일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일이란 직장에 다니시는 것 포함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 참여에 대한 측정은 노동시장 참여의 의미로써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자영

업과 부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개수,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포함되었다. 혼인상태의 경우 ‘혼인 중’, ‘별거’, ‘이혼’, ‘사별 또는 실종’, ‘결혼한 적 없음’으로 구분되어 있는 변수를 ‘혼인 중’과 ‘혼인 중 아님’의 2개 집단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대학교 졸업이상의 4개 집단으로 측정하였다. 건강수준은 두 가지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1~5점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객관적 건강상태로서 만성질환의 수는 7개 질환의 존재 여부에 대한 합산으로 측정하였다. 사회활동 참여수준은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모임,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모임, 자원봉사, 정당, 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모임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가를 여부를 측정하는 7개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노인의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과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편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의 총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와 관계, 노동소득, 공적연금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노동여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표 1>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구분	변수 및 신뢰도	측정방법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Cronbach's α=.848)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전반적인 삶의 질 5개 문항 평균(0~100점)
독립 변수	총소득	지난해 총 가구소득
	노동소득	(월평균임금소득×임금소득개월 수)+(월평균자영업소득×자영업소득개월 수)+ 지난해 총 부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월평균금액×수혜개월 수)+(특수직역월평균금액×수혜개월 수)+ (기초노령연금월평균금액×수혜개월 수)
조절 변수	노동 참여	'1=예', '0=아니오'
통제 변수	성별	'1=남성', '0=여성'(여성 기준 더미)
	연령	2013년 기준 나이
	혼인상태	'1=혼인 중', '0=혼인 중 외'(혼인 중 외 기준 더미)
	교육수준	'1=초등학교 졸업이하'~ '4=대학교 졸업 이상'
	주관적건강상태	'1=매우 나쁨'~ '5=매우 좋음'
	만성질환개수	고혈압, 당뇨병, 암, 폐질환 등 7개 질환의 '1=예', '0=아니오' 7개 문항 합산
	사회활동참여	'1=예', '0=아니오' 7개 문항의 합

을 실시하였다. 먼저 노인의 총소득 수준과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이후에 노동소득, 공적연금으로 나눈 소득유형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과 추정치 왜곡에 따른 상호작용항 해석 오류 방지를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값을 Z값으로 변환하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사용,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5차 조사(2014)에서 본 연구에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노인 5,331명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57.4%, 남성은 42.6%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은 본 연구 대상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60세~105세 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72.21세(표준편차=8.03)였다.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70.9%로 다수의 연구대상자가 배우자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5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20.3%, '중학교 졸업이하' 16.4%, '대학교 졸업이상' 7.7%로 연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분	빈도	비율(%)		
성 별	남	2,272	42.6		
	여	3,059	57.4		
	계	5,531	100.0		
혼인상태	혼인 중	3,782	70.9		
	혼인 중 외	1,549	29.1		
	계	5,531	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이하	2,960	55.5		
	중학교 졸업이하	874	16.4		
	고등학교 졸업이하	1,084	20.3		
	대학교 졸업이상	413	7.7		
	계	5,531	100.0		
변 수	N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 령	5,531	72.21	8.03	60.00	105.00
주관적 건강상태	5,531	3.23	0.87	1.00	5.00
만성질환 개수	5,330	1.40	1.19	0.00	7.00
사회활동참여	5,531	0.94	0.75	0.00	75.00

다음으로 연구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평균 3.23점(표준편차=0.87)으로 5점 척도인 것을 감안 할 때 중간값 정도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객관적 건강상태라고 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개수는 평균 1.40(표준편차=1.19)로 7개 질환의 합임을 감안할 때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의 수가 적은 것이 완벽히 객관적 건강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활동 참여는 평균 0.94(표준편차=0.87)로 사회활동 7개 영역의 합임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 하나 미만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사회활동 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변수의 특성과 관계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57.49(표준편차=15.47)로, 중간값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총소득은 평균 2,147.79(표준편차=2,074.30)로 개인별 총소득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소득의 경우도 평균 1,649.54(표준편차=1968.78)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평균 394.83(표준편차=674.47)으로 나타나, 노동소득에 비해 공적연금소득의 평균은 낮았다.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5,329	57.49	15.47	98.00	
독립변수	총소득	5,254	2,147.79	2,074.30	33,000	
	노동소득	1,143	1,649.54	1968.78	30,000	
	공적연금소득	3,547	394.83	674.47	5,640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삶의 만족도	t	
조절변수	노동 참여	노동	1,548	29.0	62.36	16.369***
		비노동	3,783	71.0	55.49	

*** p<.01

또한 전반적으로 연구대상 노인층의 소득격차는 총소득뿐만 아니라 노동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3>(<표 4>))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동 참여 집단의 삶의 만족도 점수가 비참여 집단보다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표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연령	교육 수준	건강 상태	만성 질환	사회 활동	총소득	노동 소득	공적연금 소득	삶의 만족도
연령	1								
교육수준	-.321***	1							
건강상태	.344***	-.259***	1						
만성질환	.213***	-.172***	.388***	1					
사회활동	-.274***	.304***	-.317***	-.174***	1				
총소득	-.221***	.326***	-.199***	-.142***	.195***	1			
노동소득	-.239**	.377***	-.198***	-.133***	.203***	.751***	1		
공적연금 소득	-.215**	.464***	-.179***	-.101***	.268***	.326***	.176***	1	
삶의 만족도	-.280***	.279***	-.509***	-.276***	.304***	.253***	.259***	.264***	1

*** p<.01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총소득($r=.253$), 노동소득($r=.259$), 공적연금소득($r=.264$)과 삶의 만족도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에서 총소득과 노동소득의 관계가 $r=.751$ 로 절대값 6을 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소득과 노동소득의 효과를 각각 다른 회귀모형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더 엄격하게 검증하고자 본 연구의 각 회귀모형에서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tolerance)를 분석한 결과 VIF값은 1.095~1.647로 10을 넘지 않고, tolerance값은 .607~.913로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나 주요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

1) 총소득에 대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

노인의 총소득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총소득과 노동여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II를 기준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은 모두 삶의 만족도에 부정(-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건강수준의 객관적 지표인 만성질환 개수보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 삶의 만족에는 만성질환의 수보다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더 주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적 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백옥미, 2014).

독립변수인 총소득과 조절변수인 노동참여여부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노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두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총소득($\beta=.105$)의 영향력이 노동($\beta=.052$)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I에 총소득과 노동 참여여부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모형 II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32.0%에서 0.1%증가시켰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p<.01$). 즉 이러한 분석결과는 총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노동 참여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B=-1.246$). 다만, 위와 같은 회귀분석의 결과는 조절변수가 어떠한 조건에서 상호작용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조절변수의 특정한 조건 값인 평균과 ± 1 표준편차 값을 대입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도표로 제시하는 방법이 권장되며 (Ailken & West, 1991), 본 연구 또한 노동여부의 상호작용효과에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도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림 2>를 보면 비노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76.557 단순기울기는

+2.347, 노동집단의 초기값은 78.131, 단순기
울기는 +1.101로 비노동 집단의 기울기가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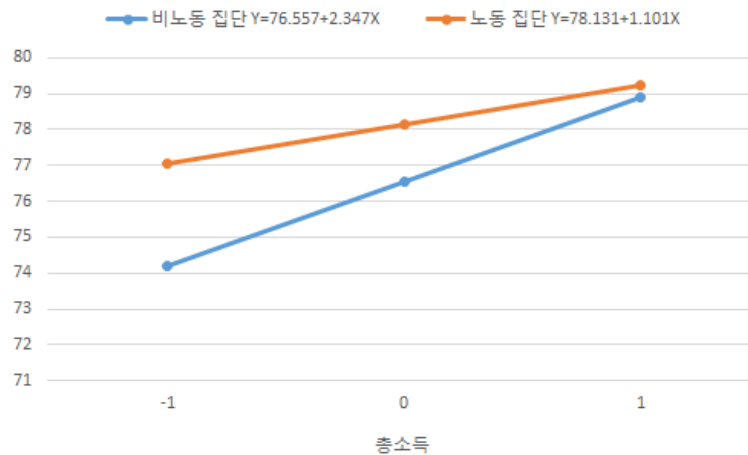
<표 5> 삶의만족도에 대한 총소득과 노동의 조절효과

변 수	모형 I			모형 II		
	B	β	t	B	β	t
성 별	-.468	-.015	-1.111	-.373	-.012	-.883
연 령	-.028	-.014	-1.028	-.032	-.016	-1.167
혼인상태	2.978	.087	6.627***	2.954	.087	6.576***
최종학력	1.134	.074	5.391***	1.146	.075	5.450***
주관적 건강상태	-6.762	-.380	-28.465***	-6.764	-.381	-28.492***
만성질환 수	-.750	-.058	-4.593***	-.736	-.057	-4.508***
사회적 활동	2.215	.107	8.546***	2.212	.107	8.539***
총소득(A)	1.943	.105	8.570***	2.347	.127	8.691***
노동여부(B)	1.751	.052	4.069***	1.574	.046	3.620***
A*B				-1.246	-.039	-2.748**
Constant	76.216	-	34.081	76.557	-	34.202
R ²	.320			.321		
R ² change	.001					
F	274.351***			247.980***		
Durbin-Watson	1.152					

** p<.01, *** p<.001

것을 알 수 있다. 즉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노
동 집단보다 비노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 보다는 총
소득의 효과가 더 크며, 총소득의 효과는 노동



<그림 3> 총소득에 대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

집단보다 비노동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

다음 <표 6>은 노인의 소득유형을 노동소득과 공적연금소득으로 나누고 각 소득유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조절효과분석에 있어 노동소득에 대한 노동 참여의 상호작용은 논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

고, 분석 상에서도 두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노동참여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만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모형 III에 공적연금소득과 노동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IV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공적연금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앞서 총소득에 대한 분석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표 6>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적연금소득과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

변 수	모형 III			모형 IV		
	B	β	t	B	β	t
성 별	2.009	1.233	1.629	2.012	.069	1.630
연 령	-.107	.095	-1.129	-.109	-.043	-1.144
혼인상태	1.966	1.304	1.507	1.962	.059	1.503
최종학력	1.048	.566	1.850	1.047	.076	1.847
주관적 건강상태	-6.037	.693	-8.710***	-6.037	-.331	-8.705***
만성질환 수	.077	.477	.162	.077	.006	.162
사회적 활동	2.245	.703	3.192**	2.239	.118	3.180**
노동소득(C)	.432	.734	.588	.438	.022	.595
공적연금(D)	1.766	.608	2.902**	1.933	.119	2.019*
노동여부(B)	1.607	1.173	1.369	1.618	.048	1.376
D*B				-.259	-.013	-.227
Constant	77.681	-	10.846***	77.816	-	10.820***
R ²	.282			.282		
R ² change	.000					
F	25.716***			23.349***		
Durbin-Watson	1.544					

* p<.05, ** p<.01, *** p<.001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 모형 즉, 보다 간단한 모형 III을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소득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공적연금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소득의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노동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OECD 국가들 중 노인들의 높은 경제활동비율과는 반대로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 지표로서 삶의 만족도와 노동의 관계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두는 노인일자리 정책으로서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만족에 주요한 요인으로서 노년기 노동참여와 소득 중 무엇이 더 주요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의 소득, 노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그리고 노동을 통한 노동소득과 다른 성격을 지닌 공적연금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러한 관계에서 노동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노동 참여 집단이 노동 비 참여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노동이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백옥미(2014)는 한국 노인에게도 노동이 단순한 생계유지수단이 아닌 심리적 안녕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노동을 통한 서구 중심의 성공적 노화 혹은 생산적 노화 패러다임에서 제기한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 효과를 긍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부족과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가 서구 사회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 물론 높은 노인 빈곤율만큼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일부 노인 계층에서는 노동이 심리적 안녕 수준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소득과 노동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의 총소득과 노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 중에서 총소득의 상대적 영향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노동 참여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노년기의 복지 수준의 한 측면으로서 삶의 만족에 노동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지만, 단순히 노동 참여보다는 소득수준이 더 주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노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노동참여 집단과 비노동 집단의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이를 더욱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노년기 노동으로 인한 삶의 만족은 곧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의 생존을 위한 노동과 그렇지 않은 노동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생산적 노화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차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과 심리적 안녕을 원하는 노동의 형태로 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을 통한 심리적 안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노년기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노년기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곧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에 관한 필요성이기도 하다.

셋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노동소득, 공적연금소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적연금소득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의 소득 중 노동을 통한 소득보다는 공적소득보장이 더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즉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노동의 강조와 노동을 통한 소득의 확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부분의 노인이 임시·일용·무급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나 자영업자로 일한다는 사실(정경희 외 2014)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노동으로 인한 소득은 지속성이 크지 않으며 동시에 노년기의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 노동의 타율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노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달리 소득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초 아래에서 노동으로 인한 소득의 발생은 소득액을 보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동시에 노년기 노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고용 연

장을 이야기하는 노인 노동 정책은 삶의 질이라는 측면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20대 총선에서 노인 일자리 공약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늘리고 참여수당을 확대하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19대 대선에서도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노인 노동 정책은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과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을 4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것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것과 대동소이하며 심지어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는 축소된 제안이기도 하다.

이처럼 노인 노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안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노인 일자리 등 노인의 노동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적 유지 및 적정한 임금, 종사상 지위 확보 및 근로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 일자리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노인 고용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정경희 외 2014). 이 문제는 첫째 제안에서 노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노년기 노동은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사회활동 참여라는 욕구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이외에 노인의 욕구를 고려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인 고용 정책의 다른 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 노인 세대와는 다른 사회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 수준 등에서는 그 차이가 명백하다.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시대적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노인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유지 및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제도화 되었지만 아직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안정된 정착이 중요하다.

물론 현재의 인구구조 상 공적연금 등을 무조건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퇴직연금, 사적 개인연금 등 노인소득보장체계의 다원화 및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공적연금 등의 비중을 일정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노년기 소득의 안정성 확보 및 노동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년기 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규명하면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통제 변수들을 고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차 자료의 한계 상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둘째, 소득 변수를 노동 소득과 공적연금소득으로만 구분하여 소득유형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의 비율이 낮지 않은 만큼 자영업 소득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너무 적은 수의 표본만이 자영업 소득을 보고하여 이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셋째, 노동 참여와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도 노동 동기, 노동 조

건, 종사상의 지위, 노동 시간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득유형과 노동 관련 요인들이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노년기 삶에 임금노동을 비롯한 생존을 위한 노동(labour)과 여가와 같은 일(work)의 의미와 경험 그리고 그 맥락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년기 생존을 위한 노동과 삶을 즐기기 위한 활동이 지니는 실질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노인복지관련 정책과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희. 2013.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고찰 : 노인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1: 359-382.
- 강선욱. 2011.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 관련 요인 연구-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7: 23-44.
- 장지애. 2006.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혜원·조영태. 2007. “서울시 남녀노인의 건강불평등 :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통합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4): 164-201.
- 김남순. 2007. “우리나라 노인인력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3(1): 148-171.
- 김동배·유병선·이은진. 2013. “근로노인의 근로만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노인복지연구』 60: 201-235.
- 김복순. 2014. “자영업 고용 구조와 소득 실태”. 『노동리뷰』 110(5): 67-79.
- 김승곤. 2004.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보건과 사회과학』 16: 67-106.
- 김은영. 2014. “빈곤노인의 은퇴 후 노동시장 재취업”.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2): 29-40.
- 김진구. 2012. “소득계층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 불평등 측정 : EQ-5D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2(3): 759-776.
- 김진영. 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 연령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127-153.
- 김형수·김용섭. 2009. “장애노인의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22: 183-215.
- 권중돈·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문정화·강민아. 2017. “노인의 종사상 지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수준, 건강수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정책』 44(1):79-103.
- 박금분. 2008.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석돈·박순미·이경미. 2008. 『노인복지론』. 경기: 양서원.
- 박선권. 2013. “생산적 노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13-29.
- 박지현. 2000.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관계망과 재가복지서비스 욕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산본신도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옥미. 2014.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변화 궤적과 삶의 만족도”. 『보건사회연구』 34(4): 241-263.
- 우혜봉·윤인진. 2001. “한국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지위의 차이”. 『보건과사회과학』 9: 67-106.
- 이갑용·송원호·강정석·이재희·조용근. 2010. “고령화시대 노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리뷰』 1(1): 147-162.
- 이미숙. 2009. “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건강불평등의 구조분석”. 『보건과

- 사회과학』 25:5-32.
- 이보람·이정규. 2016. “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의 효과비교”. 『노인복지연구』 71(2): 351-376.
- 이상록·이승아. 2014. “노인가구의 소득유형 및 소득원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5(3): 71-95.
- 이승미. 2002. “한국노인의 사회계층별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원의 영향에 관한연구”. 『한국노년학』 22(3): 135-157.
- 이영애. 2016. “노인소비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이 노동시장 참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1): 177-202.
- 이원진. 2012.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 불평등 변화와 소득이동성”. 『한국사회복지학』 64(2): 185-212.
- 이원진. 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증가의 원인:누적적 혜택/불리 모형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사회학』 47(5) : 241-275.
- 이정화·한경혜. 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 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1): 209-238.
- 이태화·고일선·이경자·강경화. 2005. “빈곤층 노인의 건강상태, 건강인식 및 건강증진 행위 실천과의 관계 : 보건소 방문간호 대상자 중심으로”. 『한국간호과학회』 35(2): 252-261.
- 임중철·주경희·임병우. 2012. “노인의 일자리 참여 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7: 29-50.
- 원중순·김계하. 2008. “방문간호 대상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및 생활만족도 평가”, 『한국간호과학회』. 31(1): 1-10.
- 윤민석. 2016.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1-22.
- 전미해·김정현. 2017. “노인 소득원별 소득비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2(1): 282-303.
- 전혜정·김명용. 2014. “노년기 취업이 우울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의 성차”. 『한국노년학회』 34(2): 315-331.
-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정경희·오영희·강은나·김재호·선우덕·오미애·이윤희·황남희·김경희·오신휘·박보미·신현구·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혜경. 2011.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를 통한 한국 노인들의 소비자 욕구 탐색”.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2). 23-38.
- 통계청. 2011. 『2011 고령자통계』 .
- 통계청. 2012. 『2012 고령자통계』 .
- 허성호·김종대·정태연. 2011. “취업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노년학』 31(4): 1103-1118.

Non-Korean References

- Aiken, Leona S. and Stephen G.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quino, Juan A., Daniel W. Russell, Carolyn A. Cutrona, and Elizabeth M. Altmaier. 1996. "Employment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4): 480-489.
- Audretsch, David B. 1994. "Business Survival and the Decision to Exit." *Journal of the Economics of Business* 1 (1): 125-137.
- Bass, Scott A., Francis G. Caro, and Yung-Ping Chen, eds. 1993.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Westport CT: Auburn House.
- Christ, Sharon L., David J. Lee, Lora E. Fleming, William G. LeBlanc, Kristopher L. Arheart, Katherine Chung-Bridges, Alberto J. Caban, and Kathryn E. McCollister. 2007. "Employment and Occupation Effects on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mericans: Does Working Past Age 65 Protect against Depression?"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 (6): S399-S403.
- Hao, Yanni. 2008. "Productive Activ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 (2): S64-S72.
- Jang, Soong-Nang, Sung-Il Cho, Jiyeun Chang, Kachung Boo, Hyun-Goo Shin, Hyejung Lee, and Lisa F. Berkman. 2009.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s: Results from a Baseline Survey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4 (5): 677-683.
- Lee, Jinkook and James P. Smith. 2009. "Work, Retirement, and Depression."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2 (1-2): 57-71.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Global Initiative for the Elimination of Avoidable Blindness, Action Plan 2006-2011*. Copenhagen: World Health Organization.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Baik Ok-mi. 2014. "The Associ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Employment Transition Trajectory in Korean Older Adul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 (3): 241-263.
- Choi Hye-kyung. 2011. "Perceived Successful Aging and Consumer Needs of Older People in Korean Society."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7 (2). 23-38.
- Chun Mi-ae and Kim Jung-hyun. 2017. "The Effects of its Proportions of Different Sources of Old Age Income on Older People'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 (1): 282-303.
- Chun Mi-ae and Kim Myung-yong. 2014.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Longitudinal Effect of Employment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4 (2): 315-331.
- Heo Sung-ho, Kim Jong-dae, and Jung Tae-yeon. 2011. "Analysis of Employment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1 (4): 1103-1118.
- Jung Kyung-hee, Oh Yung-hee, Kang Eun-na, Kim Jae-ho, Seon Woo-Duck, Oh Mi-ae, Lee Yun-hee, Hwang Nam-hee, Kim Kyung-hee, Oh Shin-hwy, Park Bo-mi, Shin Hyun-gu, and Lee Keum-lyoung. 2014. *The 2014 Survey on the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ung Kyung-hee, Oh Yung-hee, Seok Jae-een, Do Se-rok, Kim Chan-woo, Lee Yung-kyung, Kim Hee-kyung. 2004. *The 2004 Survey on the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ang Hye-won and Cho Young-tae. 2007. "Socioeconomic Status, Social Integration, and Health Inequalities of Elderly Korea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 (4): 164-201.
- Kang Mi-hee. 2013. "A Study on Elderly Povert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Ko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1: 359-382
- Kang Seon-ok. 2013. "A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Depression of the Low-income Elderly People."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7: 23-44.
- Kang, Ji-ae. 2006. "The Effect of Old Adults Productive Activity on Successful Aging." MA thesis, Daegu University.
- Kim Bok-sun. 2014. "Self-employment Structure and Actual Income." *Labor Review* 110 (5): 67-79.
- Kim Dong-bae, Yoo Byung-sun, Lee Eun-jin. 2013. "The Influence of Work

-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the Working Elderly in Seoul - A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0: 201-235.
- Kim Eun-yung. 2014. "Revealing the Labor Market after the Retirement of the Elderly Poor."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2014 (2): 29-40.
- Kim Hyeong-soo and Kim Yong-seob. 2009. "The Effect of Depression on the Quality of Life in Elderly with Disability."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gulations* 22: 183-215.
- Kim Jin-gu. 2012. "An Analysis of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y of the Aged Applied to EQ-5D."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2 (3): 759-776.
- Kim Jin-you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in Korea - Focusing on Age Variatio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 (3): 127-153.
- Kim Nam-sun. 2007. "Current States and Improvement Plan for Elderly Resource in Korea."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upport* 3 (1): 138-171.
- Kim Seung-gon. 2004. "Socioeconomic Status and Chronic Diseases Prevalence Inequalities in Late Lif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16: 155-177.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2011 Statistics of the Aged*.
- . 2012. *2012 Statistics of the Aged*.
- Kwon Jung-don and Cho Ju-yeon. 2000.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 (3): 61-76.
- Lee Bo-ram and Lee Jung-kyu. 2016.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Economic and Social Participation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Old Adul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 (2): 351-376.
- Lee Jeong-hwa and Han Gyeong-hye. 2003. "The Effects of Work and Leisure Activiti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13 (1):209-238.
- Lee Kab-yong, Song Won-ho, Kang Jung-suk, Lee Jae-hee, and Cho Yong-keun. 2010. "Study on Economic Activities of Old People in Aging Society."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1 (1): 147-162.
- Lee Mee-suk. "Structures of Health Inequalities of Korean Elderly Analysi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25: 5-32.
- Lee Sang-rok and Lee Soon-a.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Types and Sources on Depression and Self-respect in Elderly Korea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5 (3): 71-95.
- Lee Seung-mi. 2002. "A Study on Health Status by Social Class and the Influence

- of Social Support among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 (3): 135-157.
- Lee Tae-Hha, Ko Il-sun, Lee Kyung-ja, and Kang Kyung-hwa. 2005. "Health Status, Health Percep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Low-income Community Dwelling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2): 252-261.
- Lee Won-jin. 2012.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Mobility Associated with a Transition to Old A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 (2): 185-212.
- . 2013. "Why does Income Inequality Rise in Old Age? An Exploratory Analysis on a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Mode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 (5): 241-275.
- Lee Young-ae. 2016. "The Effect on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12 (1): 177-202.
- Lim Joong-cheol, Ju Kyong-hee, and Lim Byung-woo. 2012. "Effects of Work Participation on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7: 29-50.
- Moon Jung-hwa and Kang Min-ha. 2017.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Moderating Effects of Income and Health." *Social Welfare Policy* 44 (1): 79-103.
- Park Ji-hyeon. 2000.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Network of Old people in the Urban Low-income Brackets and the Home-staying Welfare Service." MA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 Park Keum-bun. 2008. "The Effect Old Adults' Productive Activity on Successful Aging." MA thesis, Daegu University.
- Park Suk-don, Park Sun-mi, and Lee Kyung-mi. 2008. *Social Services for Older Adults*. Gyeonggi: Yangseowon.
- Park Sun-kwon. 2013. "A Critical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Productive Aging.'"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Studies* 23: 13-29.
- Won Jong-sun and Kim Kye-ha. 2008. "Evaluation of Cognitive Function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Receiving Visiting Nursing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 (1): 1-10.
- Woo Hae-bong and Yoon In-jin. 2001. "Differences in the Health Status of the Korea Elderly by Socio-demographic Factors."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9: 67-106.
- Yoon Min-suk. 2016.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Labor in Seoul: A Policy Direction." *Seoul Policy Report* 209: 1-22.